

亞·太平洋지역의 에너지事情

— 大韓石油協會 弘報室 —

높은 中東의존도

체 이스 맨하탄銀行의 84년도 보고서에 따르면 아시아·태평양지역(여기에서는 表에 나와있는 국가에 한함)의 1차에너지소비량은 1985년 하루 2,848만배럴(석유환산)에서 2,000년에는 4,360만배럴로 연평균 2.9%로 증가한다. 西歐의 1.4%(2,000만배럴→2,480만배럴), 北美의 1.4%(4,000만배럴→5,000만배럴)에 비교하면 2배이상의 높은 에너지수요증가율이 예상되고 있다.

歐美에 비해서 이들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에너지수급구조의 특징은 국민 1인당의 소비가 歐美의 1/4 내지 1/5로 아직 적다는 점과 石油依存도가 매우 높다는 점이다. 日本의 2.9톤, 싱가포르의 3.5톤을 제외하면 極東, 東南아시아 각국의 평균적인年間 1인당 에너지소비량은 1톤 내외이다.

한편 石油依存도는 자원산출국인 인도네시아(43%), 말레이시아(63%), 태국(36%)에서도 예상밖으로 높으며, 輸入依存그룹은 日本 61%, 韓國 53%, 台灣 63%, 필리핀 43%, 홍콩 98%, 싱가포르 100%로 되어 있다.

그래도 1차석유위기 이후 세계전체로서는 石油依存도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데 비해, 아시아·태평양, 특히 西태평양 지역에서는 그 감소추세가 매우 완만하다(73년 78%, 83년 73%). 또한 表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西태평양지역의 석유수급은 대폭적인 공급부족, 즉 中東原油에의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다. 日本, 韓國 등 대형석유수입국의 중동의존도가 약 70%로 높

고 특히 향후에 손을 쓰지 않는 것을 前提로 할 때 90년대 중반에는 이것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에너지공급을 안정시키는데 있어서는 석유의존도, 특히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中東의존도를 가능한 한 감소시키는 편이 좋다는 點에는 각국 모두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아시아·태평양지역에 공통적인 에너지공급 안정화예의 전략적 목표, 지역협력의 과제로 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① 증대하는 각국의 국내에너지수요의 충족, ② 地域內에서의 에너지資源 개발의 촉진, 특히 천연가스, 석탄 등 石油代替源의 개발과

아시아·太平洋地域의 石油수급

(單位: 배럴 / 日)

		消費量	生産量
日	本	360萬	(輸入)
韓	國	55萬	(輸入)
中	國	190萬	225萬
台	灣	25萬	(輸入)
필	리	17萬	2萬
香	港	11.5萬	(輸入)
싱	가	6萬	(輸入)
말	레	20萬	42萬
태	국	22萬	0.7萬
인	도	40萬	140萬
브	루	0.2萬	18萬
오	스	59萬	53萬
뉴	질	8萬	15萬
計		813.7萬	495萬

〈資料〉日經 世界石油데이터서비스

이용의 강화 등이다.

①과 ②는 서로 연관이다. 아시아·태평양지역에는 中共,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과 같이 에너지資源의 혜택을 받고 있으나, 지금까지의 개발은 外貨獲得의 가장 유효한 수단인 석유에 편중되어 있어 代替資源의 개발과 이용이 지연되고 있는 나라가 많다. 이들 資源國은 석유 뿐만 아니라 천연가스, 석탄, 水力, 太陽光 등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內需를 충족시키면서 석유의 수출여력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環境對策과 기술적 과제

석유 이외의 代替에너지의 활용에는 거액의 인프라(사회간접자본) 투자가 필요하며 많은 對外債務를 지고 있는 개발도상국에서 外貨獲得型이 아닌 國內需要充足型의 대규모 에너지프로젝트를 실시하는 것은 자금면이나 우선 순위에서 있어서도 용이한 것이 아니다. 전반적으로 1次商品經濟가 부진하다고 하는 국제경제 환경에서 中央政府에 의한 국내에너지프로젝트用 外資導入에는 제약이 있다.

이러한 장벽을 극복하려는 對應策과 시스템의 설치가 아시아·태평양에너지협력의 구체적인 과제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계획단계, 구상단계인 地域에너지공급

력 증강계획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여러개가 눈에 띈다. 인접국간의 공동사업으로서 추진하려고 하는 어프로치도 늘어나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半島 東部연안 천연가스田에서 도렐가누→게란(쿠알라 룸푸르 南部)→싱가포르까지의 말레이半島 橫縱斷가스파이프라인計劃, 이 가스파이프라인·루트에 있는 中小도시에서의 가스공급 및 發送電계획이 있다.

水量이 많은 보르네오섬 사라와크地區에서의 대규모 水力發電과 이것을 인도네시아의 東칼리만탄 地區에 보내는 配送電網, 또한 이것을 말레이半島까지 보내는 南지나海 海底送電線계획, 인도네시아가 자우島에의 인구과도집중을 시정하는데 공헌할 것으로 보이는 北수마트라綜合開發構想 등이 여러사람의 관심을 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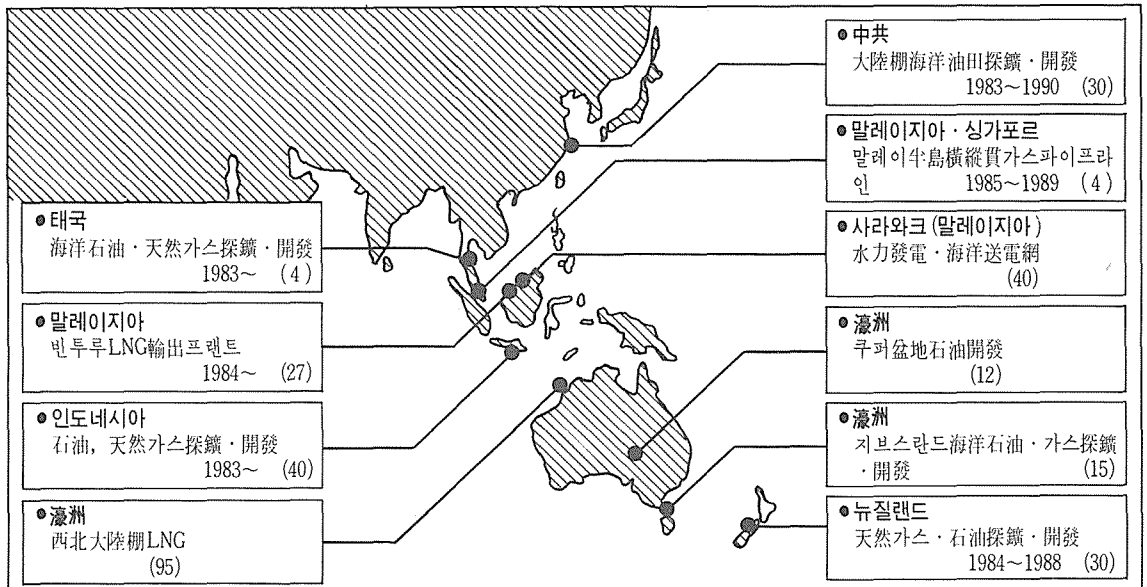
長期低利 融資등 필요

싱가포르나 홍콩에서는 발전에너지源의 脫석유화로서 석탄화력발전소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人口密集地라는 立地때문에 환경대책과 灰처리대책에서 아직 기술적으로 미해결의 과제를 안고 있다.

中共도 自由開放路線을 추진하며 고도경제성장을 지

아시아·大洋州의 주요 에너지 프로젝트

(괄호는 投資推定額, 單位: 億달러)



향하는데 있어서 커다란 장애는 에너지의 공급부족으로 지적되고 있다. 海洋油田開發의 성패가 열쇠이나 우선 어느 정도의 油田을 개발하였다고 해도 국내자동차의 연료源을 회발유에 의존하게 된다면 석유수출의 확대와 외화획득을 기대할 수 없다. 석유를 수출용으로 확보하는데 있어서는 천연가스와 석탄을 활용하는 메탄올, LNG(압축천연가스) 등 자동차 新燃料의 개발, 도입과 그리고 석탄과 원자력에 의한 發電, 送電能力의 정비가 과제이다.

이와 같은 各國內 및 地域에너지공급시스템에 대한 국제금융협력, 기술협력에는 종래의 發想과 다른 새로운 方法論이 추후되고 있다. 中央政府의 상환보증 없이도, 즉 都市가스網을 건설하는 자가르타市나 메단市(수마트라섬의 中心地)가 발행하는 市債를 구입하는 형식으로 長期低利融資를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案이다.

地域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에너지資源國의 수출일변도가 아닌 균형이 잡힌 에너지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이것은 특히 천연가스, 석탄 등 자원매장량에서 보아 아직 利用度가 낮은 자원의 공급력을 높일 수 있게 되며 產油國에서의 석유절약과 석유수출여력의 확보에도 관계된다. 아시아·태평양지역 전체로서도 地域內에서의 石油調達을 증가시키고 中東석유에의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석유이외의 炭火水素源(천연가스와 석탄)을 국내에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資本集約型의 시설(가스 파이프라인, 送電網)의 건설, 자금협력, 그것을 이용하는 기술(都市가스 시스템, 가스化發電등)의 이전은 이러한 전략적인 意義가 크다.

아시아·태평양地域의 에너지공급에 있어서 域內調達度를 높이는 방법으로서 지금까지 태평양에의 수출

여력이 없었던 美国, 캐나다의 잠재공급력을 어떻게 위치설정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

특히 최근 美国정부는 美日 무역불균형 시정책과도 연결, 코스트面에서는 경쟁력이 열세인 美国產 석유, 석탄, 천연가스를 日本을 중심으로 한 태평양시장에 판매해야 한다는 정치적 압력을 가해 오고 있다.

이 提案은 美日간의 무역수지를 확대 균형을 맞춘다고 하는 관점이나 美国의 아시아·태평양에너지시장에의 참여는 中東資源에의 의존도상각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는 고려할 가치가 있다. 그러나 美国資源의 입지조건은 알라스카의 태평양연안지역을 제외하면 西태평양권내의 資源保有國에 비하면 여러면에서 국제경쟁력에서 열세에 있다.

域內諸國과의 友好에도 영향

美国의 에너지자원중에서 코스트, 가격면에서 경쟁력이 실현될 수 있는 開發프로젝트를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아시아·태평양 전체의 수급균형을 고려할 때 日本의 투자나 기술협력, 정부지원의 대상으로서 美国資源의 개발과 수입압축을 최우선으로 하지 않으면 않된다는 必然性은 없다.

아시아·태평양圈의 資源國은 美国이상으로 자원수출의존형의 經濟體質이다. 오히려 美日兩國의 官民이 협력하며 그들 나라의 수출도 内需도 라는 要請에 부응한다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아시아·태평양時代」에의 협력이라는 테마는 추상적이며 정서적이지만 에너지협력문제는 美国이나 日本에 있어서 域內諸國과의 우호, 同盟關係를 더욱 진전시킬 것인가 후퇴시킬 것인가라는 戰略에 관계된 것이다. * (日本經濟新聞 85. 4. 27)

지각없는 외제선호

부리썩는 경제질서